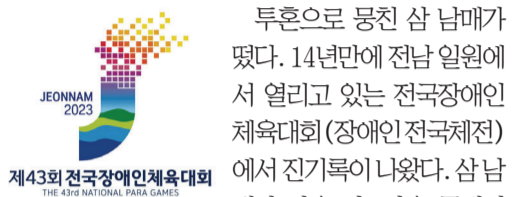


## 金金金金金金... 광주 삼남매 금메달 6개

육상 김천천·지혜·선정 남매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나란히 2관왕  
'삼남매 3관왕' 진기록 기대



투혼으로 뚫은 삼 남매가 됐다. 14년만에 전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장애인전국체육대회)에서 진기록이 나왔다. 삼남매가 같은 날, 같은 곳에서 금메달을 6개나 수확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천천(23·광주시장애인육상협회)과 지혜(17·광주여고)·선정(16·광주세광고) 삼 남매이다. 이들은 지난 4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 전국체육대회' 육상 경기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이어 5일에도 각각 금메달을 따내며 2관왕에 올랐다.

삼 남매 모두 시각장애 선수로 트랙과 필드에서 금메달 6개를 합작한 것이다. <관련기사 18면> 김천천은 F13(시각장애) 남자 창던지기에서 30m42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시각장애 선수인 김지혜 역시 F13 여자 창던지기에서 21m27의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막내 김선정은 필드가 아닌 트랙에서 여자 T13(시각장애) 400m 우승(1분19초70)을 수확했다.

5일에는 김천천이 남자 원반 던지기에서 1위에 올랐고, 동생 김지혜 역시 여자 원반 던지기에 출전해 금메달을 수확했다. 트랙 종목에 출전한 김선정도 여자 100m에서 1위로 골인하며 정상에 차지했다.

이들의 투혼이 빛나는 이유는 선천적 장애를 운동으로 극복하며 꾸준히 노력한 끝에 놀라운 기록을 합작했다는 데 있다. 천천이를 비롯한 가족 8명 중 3명이 선천적 시각장애가 있다. 특히 1남 5녀 중 절반이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다.

2000년생으로 큰아들인 천천은 중학교 시절 합기도 등 다양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서의 꿈을 키워왔다. 고등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진로를 정한 그는 조산대에 진학 후에도 특수 교사의 꿈과 함께 운동을 놓지 않으며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성과를 꾸준히 이어왔다.

김천천은 2018년 38회 대회에서 원반던지기 금메달로 첫 메달을 획득했고, 이듬해 39회 대회에서 창던지기 금메달을 수확하며 이름을 알렸다. 2021년 41회 대회에선 창던지기(금메달)와 원반던지기(은메달), 포환던지기(동메달) 등 세 종목에서 메달을 따낸 그는 2023년 42회 대회에서 창던지기 금메달 한 개를 더 추가하며 육상 필드계 스타로 자리 잡았다. 2006년생 김지혜는 지난해 장애인 전국체육대회에서 원반던지기·창던지기·포환던지기에서 3관왕을 기록하며 혜성처럼 등장했



육상 창던지기 김천천.



육상 창던지기 김지혜.



육상 T13 400m 김선정.

다. 그것도 세 종목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김지혜는 이번 대회에서도 창던지기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다섯째인 김선정까지 처음 출전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무서운 삼 남매의 탄생을 알렸다.

경기 후 김천천은 "같은 필드 종목 선수인 지혜에게는 자세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선정이는 예전에 내가 트랙경기를 했던 경험을 살려 조언해주고 있다"며 "함께 출전해서 모두 금메달을 따기쁘다"고 말했다.

이들의 투혼을 지켜본 어머니 박수진씨는 "천천이가 운동을 하는 걸 보고 동생들이 영향을 받아 운동을 하게 됐는데 장애를 잘 극복하고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고 말했다. 이어 "트랙은 관창인데 필드는 아슬아슬하다"며 "재발 다치지않기를 바랐는데 좋은 성과를 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관계자는 "이들 삼 남매의 투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천천이와 지혜가 7일 각각 포환던지기 종목이 남아있고, 선정이는 7일과 8일에 각각 여자 200m와 여자 10km 마라톤이 남아 있어 9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금메달을 따내는 진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전종목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간 '기술적인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값이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 전남 지자체, 분만실·응급실 이용 전국 최악

1시간 이내 도착 불가능 시·군  
분만실 90%·응급실 77%

병원과 의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분만과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의료 취약지 기초지자체가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곳(90%)의 주민들이 분만실 접근 및 이용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7곳(77%)의 주민들은 응급의료 시설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응급 의료시설과 분만실의 접근성·이용도가 극히 낮은 지역은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비교적 인구가 적은 농업 생활권으로, 전남이 가장 취약하며 경북과 강원이 뒤를 이었다.

이 때문에 전남과 경북 등은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의사의 절반을 크게 웃도는 64%가 수도권에서 근무하는 현실에서,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2022년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만의료에 대한 접근성 취약도, 분만의료 이용 취약도를 분석한 결과, 43.2%인 108곳이 분만의료 취약지로 분류됐다. 의료원은 15-49세 가임인구 중 분만실에 60분 이내에 접근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30%를 넘을 때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다. 또 분만실 이용자 중 분만실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60분 이내인 경우가 30% 미만일 때 의료 이용이 취약하다고 봤다.

중앙의료원 평가에 따르면 전남의 분만 의료 취약지는 전국 최고인 20곳에 달하며, 특히 접근성과 의료 이용성 모두 취약한 경우인 A등급(전국 30

곳)도 6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도달 시간을 기준으로 분석해 250개 시·군·구 중 약 40%인 98곳이 '응급 의료 취약지'로 분류된 가운데,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지는 22개 시·군 중 77%인 17곳에 달했다.

취약지 기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지역응급의료센터에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경우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40곳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2023년 전라남도 SOC확충 올해도 지속된다!

2023년 국고예산, 역대 최대 8조 6,525억원 확보!  
정부의 SOC예산 축소 기조 속에서도 7년 연속 1조원 이상 국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로 전남 SOC 르네상스 시대 열다!

